

【연구논문】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의 양상: 성과와 전망*

신문수

(서울대)

이른바 ‘다문화시기’로 일컬어졌던 1980년대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은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을 촉발시킨 정전 개편 및 교과목 개편 운동의 결과로 교과목에 소수집단 출신의 작가와 작품이 다수 포함되었고 백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의 문화 유산이 미국사회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인이 곧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통계 수치는 흑인과 백인 집단의 빈부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문화주의 운동은 소수집단 문화에 대한 정당한 인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구성의 정당성, 더 나아가 미국의 국민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동시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학계는 물론 지성계 일반에 심원한 파장을 남겼다. 다문화주의 운동의 소용돌이는 말하자면 미국의 사회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미국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청

* 이 연구는 2010년도 서울대 사범대 간접연구비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2 신문수

사진을 그려보는 과제를 남긴 것이다.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동질성과 결속이 강조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열기는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그 미증유의 사태가 강요한 단일문화주의로의 회귀 경향 그 자체가 다문화주의 운동의 단초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기에 그 불씨가 내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추세 또한 다문화주의를 현대적 삶의 불가피한 조건이자 범세계적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전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것은 예외라기보다는 일상적 현실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된 공동체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이며 동시에 그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규범적 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경과를 되짚어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 성과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그것은 또한 다문화주의가 남긴 교훈과 과제를 간추려보고 내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한 그 운동의 향후의 전망을 그려보는 노력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 일련의 논의는 한국사회를 포함하여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고 갈등 없는 사회적 관계를 모색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다문화주의 운동의 배경과 경과

1980년대에 가열된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대학에서 벌어진 정전 논쟁과 그로부터 촉발된 초·중등학교의 교과목, 특히 역사와 사회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개편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 각급 학

교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백인 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흑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의 문화에 대한 합당한 배려와 평가가 도외시 되어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세계사나 문학 교과목 또한 여성과 비서구인들이 성취한 업적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도 함께 고창되었다. 요컨대 교육 내용에 근원적으로 다인종·다문화사회인 미국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에 합당한 문화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 개편 요구는 거시적 맥락으로 보면 1960년대의 반문화운동, 민권운동,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길러진 계몽된 비판 의식으로부터 싹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런 의식의 변화가 표출될 수 있었던 전반적 사회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1960년대에 도입된 소수 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덕분에 대학 교육의 수혜를 입는 흑인과 여학생 및 다른 소수집단 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multiculturalism’이라는 용어가 등재된 1989년경에 이르면서 네이션 글레이저(Nathan Glazer)의 표현대로 “다문화적 폭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는데,¹⁾ 단기간 동안 그 갑작스러운 사회적 관심과 열기의 분출에서 우리는 1960년대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른거리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다문화주의 운동의 연계성은 미국다문화주의 운동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차별 짓는 변인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국 대학 사회에 정전 논쟁을 불러일으킨 스탠포드 대학의 ‘서양 문화’(Western Culture) 교과목 개편 요구는 스탠포드대 흑인 학생회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 히스패닉 학생회와 페미니즘 진영의 여학생 대표들이 동참하면서 대학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 이후 옛 식민지 사람들과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주가 급격히 늘고 있는 유럽의 경우 다문화주의는 주로 인종/종족 집단의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미국은 여성, 동성애자, 노동

1) 네이션 글레이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32.

자, 장애자와 같은 모든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주체성의 표현과 권리를 요구하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전 개편 요구는 1986년에 제기되었지만 학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다. 가령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와 휴스턴 베이커 2세 (Houston Baker, Jr.)가 편집하여 1981년에 출판된 『영문학: 정전의 개방, *English Literature: Opening Up the Canon*』은 정전 변화에 대한 압력이 다문화주의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 책은 예일대 영문학연구소가 주관하여 1979년 ‘문학에서 세계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World Language for Literature)라는 주제로, 1980년에 ‘제도로서의 문학’(Literature as an Institution)이라는 주제로 각각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문학 정전의 개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그 동인이 다문화주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적 교역의 증대로 영어가 세계어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영문학 교육도 쇄신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정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보다 9년 뒤인 1990년에 정전의 혁신을 표방하고 출판된 『히스 미국문학 선집, *Heath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의 경우는 다르다. 다문화주의가 가장 중요한 편집 원칙으로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편집자의 한 사람인 라우터(Paul Lauter)는 미국문학은 더 이상 영문학의 아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사회에 내재하는 서로 다른 많은 문화들의 차이와 상호교류”를 주목하고 “연구와 교육을 그런 다양성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 『히스 미국문학 선집』은 소수 편집진이 작품을 선정 해온 관행을 깨고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

2) Paul Lauter, *Canons and Contexts* (Oxford: Oxford UP, 1991), 16.

을 선별하여 수록하는 협찬 체제로 책을 엮었다. 그 결과 ‘백인, 남성, 기독교, 서양’에 편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흑인, 원주민, 여성, 기타 다른 소수종족 출신 작가들의 문혀 졌던 작품들이 다수가 수록되었고, 판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작품들을 추가해갔다.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사회에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이 무렵이다. 스탠포드 대학 교과목 개편 요구가 제기된 이듬해인 1987년에는 문화의 동질성에 입각한 교양 교육의 고수를 주장하는 허시(E. D. Hirsh)의 『문화교육, *Cultural Literacy*』과 블룸(Allan Bloom)의 『미국정신의 종언,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이 출판되면서 다문화주의 운동과 교과목 개편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다문화주의의 옹호와 비판으로 맞선 그 논쟁은 문화적 다양성과 그 사회적 중요성 대 문화적 동질성과 그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의 약화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 그것을 옹호하는 측이든 비판하는 측이든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여 문화, 인종, 종족, 성, 정체성과 같은 개념과 그 상관관계를 새롭게 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준 점도 중요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사회 현상과 사회적 변화와 이 용어를 결부시킴으로써 그 의미는 더 불분명해진 결과를 낳기도 했다.³⁾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988년 대학평의회에서 문제가 된 교양 과목을 ‘문화, 사상, 가치’ (Cultures, Ideas, and Values)라는 과목으로 개편하고 교과과정에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시카고, 컬럼비아, 버클리 등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스탠포드의 선례를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해갔다.⁴⁾

3) 글레이저, 같은 책, 33.

4)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Herbert Lindenberger, “On the Sacrality of Reading Lists: The Western Culture Debate at Stanford University,” accessed on 4 Dec. 2016. (<http://www.pbs.org/shattering/lindenberger.html>)

2. 정전 개편 운동의 성과

르바인(Arthur Levine)과 큐어틴(Jeannette Cureton)은 1992년 270개 공사립대학에 설문지를 보내 회수된 196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대학의 34%가 다문화적 교양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종족과 젠더 연구를 표방한 독립된 학과 혹은 프로그램이 개설된 학교는 드물지만 조사된 대학의 1/3 가량에서 이 분야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54%의 대학이 다문화주의와 연관된 교과목이 설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5%의 대학이 다문화센터나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⁵⁾ 통계 수치는 교과과정이나 제도상으로 다문화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로 접어들어서도 스탠포드대 학생들이 요구한 “인종, 계급, 양성평등”에 입각한 교과내용의 개편 혹은 확산 그리고 그런 방향의 교과목 개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기의 전환을 맞으며 로우(John Carlos Rowe)가 지난 50년간 미국학 연구 분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문화 연구에서 다문화주의를 근본 원칙으로 삼은 점이라고 회고한 것이나⁶⁾ 『히스 미국문학 선집』의 편집자로서 정전 개편을 선도해온 라우터가 2009년에 쓴 한 논문에서 1960년대에 정전 혁파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미국문학의 정전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정전 혁명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데서 확인되는 바이지만,⁷⁾ 1980년대 다문화주의 운동의 초점이었던 대학의 교과목 개편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5) Wilson Smith & Thomas Bender, ed. *American Higher Education Transformed, 1940-2005: Documenting the National Discours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2008), 194-95.

6) John Carlos Rowe, ed. *Post-Nationalist American Studi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0), 10.

7) Paul Lauter, “Contexts for Canons.” *Pedagogy: Critical Approaches to Teaching Literature, Language, Compositions, and Culture* 10.1 (2009), 107-8; 글레이저, 같은 책, 32 참조.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공교육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대학에서의 정전 개편과 발맞춰 공교육에서도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는 교과과정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물론 교과과정 개편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령 뉴욕 주의 경우 사회과목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침 작성은 1989년에 시작되었으나 위원회에서 성안한 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1991년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한 국가, 다민족: 문화적 상호의존성의 선언(“One Nation, Many Peoples: A Declaration of Cultural Interdepend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이자 교육부 차관을 지낸 다이앤 라비치(Diane Ravitch)와 아더 슐레신저 2세(Arthur Schlesinger Jr.)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뉴욕 주 교육위원회는 다시금 3차 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여 만인 1995년에 지침 초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논란을 비켜서지 못했다.⁸⁾ 이런 논쟁이 뉴욕 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다인종 비율이 높은 주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논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세기의 전환 무렵에는 다문화주의적 교과과정이 대도시는 물론 전통적인 가치관이 완강하게 남아 있는 지방 소도시의 공립학교에까지 도입되기에 이른다. 글레이저는 학습능력적성시험(SAT)의 출제 지문이 소수종족과 여성의 업적을 찬양하고 미국사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을 자주 다루고, 조라 닐 허스톤(Zora Neal Hurston),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마야 안젤루(Maya Angelou)와 같은 흑인 작가가 쓴 글의 출제 빈도가 잦아진 것도 일선학교가 다문화주의적 교과과정의 채택을 서두르게 된 하

8) 글레이저, 같은 책, 55-70; Robert K. Fullinwider, “Multicultural Education: Concepts, Policies, and Controversies,” *Publ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Theory, Critique*, ed. Robert K. Fullinwider (Cambridge: Cambridge UP, 1996), 3-22.

나의 동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⁹⁾ 1991년 보스턴의 휠록 대학에서 개최된 문화적 다원주의에 관한 한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에게 교육적 견지에서 학생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작가를 선정해달라는 설문을 한 결과 마크 트웨인(Mark Twain),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마야 안젤루,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말콤 엑스(Malcolm X), 리처드 라이트,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가 뽑혔다. 흑인이 대거 포함된 이 설문 결과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서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교육 현장에 착근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언이라 할 수 있다.¹⁰⁾

정전 개편의 요구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문화주의 운동의 가장 큰 대의이자 에너지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교육적·문화적 차원을 넘어서서 다분히 정치적인 동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주지하듯 그것은 백인 주류 사회의 일관된 동화주의의 압력에 대한 항거이자 소수집단의 정체성 표현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1960년대 민권운동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성도 이 때문에서이다. 지배/종속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된 정치적 전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논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표출되었고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조명받기도 했다. 그 사회적 함의는 실로 복잡다단해서 한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단순히 교과 과정과 강의 텍스트가 바뀐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 내용의 변화는 교육의 방향은 물론 강의 과목, 교수 방식, 평가, 가르치는 인적 자원 등에 변화를 몰고 왔다. 대학에 소수집단의 문학과 문화를 다루는 강좌와 프로그램이 속속 개설되고 다양성 있는

9) 글레이저, 같은 책, 68.

10) Marcus Klein, "Multiculturalism and Its Discontents," *New England Review* 18.4 (Fall 1997), 76.

캠퍼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되었다.¹¹⁾ 가령 1988년 교수진의 다변화를 위해 듀크 대학은 3년 내에 56개 학과에 최소 한 명 이상의 흑인 교수를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위스콘신대학은 3년 안에 소수 인종 출신 교수 7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교원의 8퍼센트를 흑인으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¹²⁾ 많은 대학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이미 여성과 소수집단 출신의 교수 인력을 늘려왔는데 다문화주의가 이를 더욱 촉진시킨 것이다.

3. 문화와 정체성

다문화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문화 상호간의 정당한 인정을 요구한다. 정전 개편 운동은 말하자면 미국의 문화적 전통의 창조에 흑인, 원주민, 이민자 혹은 여성을 비롯한 여러 소수집단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다시 말해 교육의 혁신을 통해 다문화주의가 추구한 것은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의 선양과 정당한 인정을 통해 인종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훼손되어온 종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일반 대중에게 이처럼 인간의 주체적 삶과 문화의 상관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물론 사회의 가용한 문화적 자본의 풍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이런 일반론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강

11) 우드에 따르면 종족성과 교과목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심지어 ‘민족수학’이란 교과목까지 개설되었다고 한다 (피터 우드,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해바라기, 2005], 361).

12) 피터 우드, 같은 책, 357.

조된 것이다.¹³⁾ 여기에는 사회적 인정이 곧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생각이 깃들여 있다. 이런 생각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인정의 정치학’(politics of recognition) 개념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위계적인 전통 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주어진 사회적 신분에 의해 규정된다. 삶의 의미는 주어진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은 사회적 위치보다는 자아의 내면적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확신에서 싹터 나온다. 종족 집단의 경우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족 집단도 그 내적 원천, 곧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의식과 자부심을 통해서 종족적 정체성을 길어낸다.¹⁴⁾ 테일러는 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상호

13)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라는 용어가 다문화주의와 흔히 혼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닌다. 문화적 다원주의가 다수의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개념이라면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고유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규범적 함의를 지닌다 (Grillo, R. D. *Pl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tate, Culture, and Ethnic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8-215;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82-3).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문화는 경험적 지식 혹은 인식 대상으로 주어진 일상적 내용들과 관습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전통과 새로운 양식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문화적 다원주의가 문화의 공존을 전제한다면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문화적 다원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34-36 참조). 문화적 다원주의는 소수집단 문화와 그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두가 통합된 단일체로서의 국민문화를 지향하고 그 역사적 동일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정체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의 개념을 부정하고 문화적 경험이 동질적인 시간성을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말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역사철학 테제,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에서 말한 시간 개념을 빌려 근대 국민국가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성”(homogeneous, empty time)을 특징으로 하는 민족 서사에 의해 고취되어왔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여기서 시간이 동질적이라는 것은 국민문화는 일률적인 시간에 의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건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화된 소수집단 특유의 시간상에 의해 그 일관성과 통합성이 파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허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도 그 안에 포섭되어져 버린다는 뜻이다. 소수집단의 목소리와 문화는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주관적 대화가 사회적 관계를 틀짓는 사회 체제로 발전하게 되면서 문화적 귀속감 못지않게 그것의 정당한 인정이 정체성 정립의 중요한 변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받을 때 내면에서 싹튼 자아정체성은 확고하게 정위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각에서 집단의 정체성도 다른 집단으로부터 집단 고유의 문화유산이 인지되고 그 가치를 존중받을 때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테일러는 여기에서 식민지 원주민의 부정적 자아심리에 대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통찰을 상기시키고 있다. 파농은 식민지들은 원주민들에게 부정적인 편견과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식민주의적 예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서구의 근대 식민체제는 식민지 원주민과 그 문화를 인정하길 거부함으로써 유지된 체제이다. 그러므로 피식민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첫걸음은 의식 속에 각인된 이 정형화된 이미지를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¹⁵⁾ 이런 점에서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나 불인정은 그 집단의 사람들을 열등한 타자적 존재로 묶어 놓고자 하는 지배욕의 발현이라 말할 수 있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Misrecognition shows not just a lack of due respect. It can inflict a grievous wound, saddling its victims with a crippling self-hatred. Due recognition is not just a courtesy we owe people. It is a vital human need.¹⁶⁾

[타문화에 대한] 불인정 (혹은 오인)은 단순히 그에 대한 응당한 존중심의 결여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쓰러린 상처일 수 있고, 당사자를 회복하기 어려운 자기혐오의 질곡에

14)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Multiculturalism*, Ed. Amy Gutmann (Princeton: Princeton UP, 1994), 30-31.

15) *Ibid.*, 65.

16) *Ibid.*, 26.

묶어두는 것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당연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중요한 인간적 욕구이다.

인용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문화는 개체적 삶의 뿌리이자 종족 자존감의 원천이다. 요컨대 문화는 삶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무대이자 선택 가능성을 예시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문화가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목표와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고 삶의 보람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물론 영국의 아놀드(Matthew Arnold)가 염두에 두었던 최상의 정신 활동, 특히 지배층 엘리트의 창조적 산물로서의 예술과 문학을 지칭하는 인문주의적 전통의 문화관과는 거리가 멀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근대 이후 통용되어 온 문화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가 위에서 말한 세련된 지적·예술적 활동, 둘째,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 시대의 독특한 삶의 방식, 셋째, 인간의 정신을 계발하고 형성시키는 과정이다.¹⁷⁾ 윌리엄스가 선도한 영국의 문화연구는 이 중에서 특히 ‘삶의 방식’으로서의 일상문화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소수집단의 개별 문화의 선양을 강조하는 미국의 다문화주의 운동이 전제하고 있는 문화도 이 두 번째 문화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수집단의 문화가 백인중심의 지배문화와 구별되는 열등한 하위문화로 인식되어온 사정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아놀드 류의 엘리트 문화가 떠맡았던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중시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이 대영제국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문화의 원천으로서 국민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함양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쳐왔듯

17)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1983), 90.

이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인생 이야기,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도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흑인예술운동(Black Arts Movement)의 주창자인 바라카(Amiri Baraka)는 흑인 미학이 지향할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e Black artist, in this context, is desperately needed to change the images his people identify with, by asserting Black feeling, Black mind, Black judgment. The Black intellectual, in the same context, is needed to change the interpretations of facts toward the Black Man's best interests, instead of merely tagging along reciting white judgments of the world.¹⁸⁾

흑인 예술가는 흑인의 감정, 정신, 판단력을 고취함으로써 흑인 종족이 동일시하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백인의 시각을 암송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흑인 종족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흑인 지성인의 역할 또한 절실하다.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는, 바라카가 여기서 시사한대로, 흑인들이 억압되어온 권리를 되찾고 종족의 해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가 의식을 일깨우는 원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것은 ‘문화 정치 (cultural politics)’의 무대로 입지를 바꾸며 권력의 문제와 결부되게 된다. 인문주의적 엘리트 문화의 전통에서 문화가 동질적이고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해서 다문화주의 운동에서 문화는 ‘의미화를 통한 실천’ (signifying practice)의 한 양식으로서 역동적으로 또 가변적으로 표명된다. 다문화주의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텍스트와 담론에 갇힌 지적 유희에 머무를 뿐이라는 비판을 받

18) Amiri Baraka, *Home: Social Essays* (New York: William Morrow, 1966), 248.

게 되지만 적어도 그 초창기에는 사회변혁의 에너지로서의 이 실천적 지평은 근본적 특징의 하나였다. 다문화주의와 영국의 문화연구, 특히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개념을 도입한 문화연구와의 접점도 이 점이다.

리차드 호가트(Richard Hoggart),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뒤를 이어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이 영국 문화연구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연구는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보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의 접합에 역점을 두게 된다. 그리하여 문화연구는 이데올로기의 미망을 꿰뚫고 여러 유형의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적 주체의 형성과 그러한 주체를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화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의 모색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 변화, 곧 독자가 텍스트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해석자로서 텍스트의 의미 생산을 주도함으로써, 후자는 서로 다른 억압과 갈등의 양상들을 연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¹⁹⁾ 문화연구의 이런 관심사는 초창기 다문화주의의 의제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다문화주의가 본질주의에 빠져드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차이의 정치학에 집착하는 것도 백인 주류 집단의 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인종적 편견과 정형화된 이미지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흑인문화의 창달을 표방하면서도 1920~30년대의 할렘르네상스 운동이 1960년대의 흑인예술운동 그리고 뒤이은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것도 바로 흑인의 주체적 자주성의 확립과 정치적 세력화 의지의 문제이다. 할렘르네상스를 실패로 규정하는 널(Larry Neal)은 운동의 참여자들이 억압된 문화의 복원과 표현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흑인공동체의 “목소리와 정신”이 되어서 그것을 공동체의 투쟁과 연결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²⁰⁾

19) Tony Bennet,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Cultural Studies*, Ed. Lawrence Grossberg et al. (New York: Routledge, 1992), 25.

흑인예술을 ‘블랙파워’ 운동의 미학적·정신적 동반자로 여기는 흑인민족주의는 문화적 실천을 강조하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접맥된다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과 정치를 등치시키는 그런 입장은 다문화주의가 문화정치에 경도될 때 빠져들 위험성을 예시해주고 있다. 흑인민족주의는 정치적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문화적 순혈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문화적 귀속의 강조는 문화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순수성을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본질주의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다문화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은 결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고창하면서 노정되는 본질주의적 양태에서 기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의 역동적 차이에 동의하면서 그 고유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문화를 닫힌 체계로 보고 문화의 내적 통일성을 과장하게 된다. 또 그 폐쇄성은 그 연장선상에서 타문화를 실제 이상으로 이국적이고 독특한 것으로 상정하게 되고 그 결과 문화는 상호대립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함몰될 수 있다. 문화적 본질주의는 또한 문화가 정태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라는 논리에 간하면서 문화변동이나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소수집단의 문화를 포함하여 어떤 문화든 물론 그 나름의 고유한 전통과 의미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현실적으로 상호 공유적인 요소가 더 많고 그 경계도 고착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²¹⁾

다문화주의가 본질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게 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은 페미니즘 진영이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고유성을 내세우며 내부의 소수자, 특히 여성의 희생과 억압을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으로 당

20) Larry Neal, “The Black Arts Movement,” *TDR: The Drama Review* 12 (Summer 1968), 39.

21)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문화에 의해서 주형된다는 문화주의적 사고 또한 문화에 갇힌 인간상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행동 주체로서의 인간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여 문화적 관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연시하는 것에 대해 페미니즘은 비판적이었다. 유럽과 미국 사회의 비서구 이민자 집단 중에서 가령 이슬람 공동체의 경우, 조혼, 일부다처, 강제 결혼, 성기 절단 등과 같은 행위가 이주 후에도 여전히 관행화 되어 왔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율성과 성적 평등성에 배치되는 이런 행위가 문화적 특수성으로 방치되고 묵인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오킨(Susan Moller Okin)을 위시한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의 비서구 전통사회에서 섹슈얼리티와 출산 문제가 규제의 대상이고 그 세부 규약이 결국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 여성을 예측시키는 데 귀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갈등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²⁾

오킨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 역시 본질주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녀는 비서구 사회를 가부장제 사회로 획일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이데올로기의 장막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사회의 여성들을 체제의 억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회 질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킨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거기에 내재하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영국의 여성학자 앤 필립스(Ann Phillips)는 젠더 평등성과 문화적 차이가 다 같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녀가 주창하는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는 이런 타협의 소산이다. 그녀는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하여 2001년 9/11 사태를 고비로 더욱 거세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주류 사회의 비판이 특히 젠더 평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페미니즘을 활용하여 다문화주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전략을 경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²³⁾

22) Susan Moller Okin,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Ed. Joshua Cohen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99), 7-26.

23) Ann Phillips,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P, 2007) 참조.

4. 백인성 연구

다문화주의의 또 다른 성과의 하나는 백인성 연구(whiteness studies)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담론화한 점이다. 미국사회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의식하며 생활해왔지만 백인들은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백인은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불가시적인 것이었다. 그 불가시성은 로빈 위그먼(Robyn Wiegman)에 따르면 이중적이다. 백인에 대한 묘사나 재현이 백인 일반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범주로 특수화하는 경향을 띤다는 점과 백인이 추상적 보편성의 표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투명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다.²⁴⁾ 백인의 정체성이 이처럼 투명하고 실체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주도적이었고 인구로서도 다수를 차지해온 백인은 인종적 차원에서 ‘전부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역설을 구현해왔다. 이런 역설은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한 논의가 늘 억압적인 인종 체제의 희생자인 흑인과 소수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가해자인 백인 집단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백인성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첨예화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 운동이다. 인종적 정체성이 타인종과의 대자적 위치나 시선에 의해 상대적으로 호명되며 형성된다는 것을 문화의 정치학을 통해 확인하면서 인종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수집단의 주체성과 권익의 옹호만이 아니라 인종주의가 관철되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심화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문화주의는 일깨웠다. 이런 사회적 각성을 선도한 사람의 하나인 토니 모리슨은 『어둠속의 움직임, *Playing in the Dark*』이라는 책에서 미국문학의 주요 관심사인 이른바 ‘미국적

24) Robyn Wiegman, *Object Lesson* (Durham: Duke UP, 2012), 158.

성격'이 어둠 속에 매몰되어온 흑인 집단과의 대자적 이미지를 통해 정립된 것임을 지적하고 “백인 인물들의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자질의 함양에 흑인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²⁵⁾ 인종주의를 주류 백인집단의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모리슨의 주장은 문학은 물론 역사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백인성 규명에 초점을 맞춘 인종주의 연구의 지평을 열도록 자극하는 촉매가 되었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자질과 정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에 백인은 ‘표식이 없는’(unmarked) 혹은 ‘검증이 필요 없는’(unexamined) 존재로 인정되어 왔다.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무표성 혹은 비검증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특권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두보이스(W. E. B. DuBois)는 재건 시대의 흑인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 흑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인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연대보다는 그들의 백인성을 내세워 흑인과 차별화를 꾀한 것에 주목하고 백인이 피부색 덕분에 더 숙련된 노동자로 간주되어 흑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임금이 낮다 하더라도 흰 피부색 그 자체가 “공적, 심리적 임금”으로 작용해 그것을 보상해주었다고 주장했다.²⁶⁾ 두보이스의 이런 주장을 상기하면서 미국 노동사의 조망을 통해 미국사회에서 백인성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탐구한 로디거(David Roediger)의 『백인성의 임금, *Wages of Whiteness*』이나 이그나티에프(Noel Ignatiev)의 『아일랜드인들은 어떻게 백인이 되었는가, *How the Irish Became White*』는 특히 주목된다. 이들은 19세기에 백인으로 분류되지 않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어떻게 백인으로 편입되는지를 범례적

25) Toni Morrison,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2), 52-53; 백인성 연구가 제기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해서 배영수 357-81 참조.

26) David Roediger,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Verso, 1991), 11-13 참조.

사례로 살피고 있다. 19세기 미국사회에서 흑인과 뒤섞여 막노동과 가사 노동에 종사해온 탓에 종종 ‘검은’ 백인으로 불렸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예측적인 임금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임금노동을 흑인들의 노예노동과 차별화하고 자신들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전한 생산자로 재규정함으로써 임금노동을 백인 노동자 공화주의의 초석으로 내세웠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의 표상인 백인으로 자처하며 백인정체성을 ‘창조’해나갔다는 것이다.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의 백인성 주장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시대를 거치면서 급증하는 이민자들의 표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미국의 노동계급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자의 연대보다는 인종 분리를 통해 백인화의 길을 걸었다는 이 연구 성과들은 미국사회에서 백인 정체성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백인우월주의 체제 또한 권력과 특권을 지키려는 백인집단의 정치경제적 실천과 제도화의 소산임을 일깨웠다. 백인성을 개별적인 인종적 현상으로 재정립하고 동시에 백인적 보편성의 조건이자 인식의 논리로서 그 불가시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백인성 연구는 이 같은 노동사 연구 성과에 탄력을 받아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기획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백인성 연구를 “백인 권력과 특권을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기획”²⁷⁾이라고 규정하는 위그먼은 백인성 연구의 기저에 깔린 세 가지 전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백인 학자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윤리적 책무가 있다. 둘째, 그런 연구 기획은 하나의 자율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될 수 있다. 셋째, 이 학문 분야는 반인종주의적 작업에 매진한다.²⁸⁾ 백인성 연구는 요컨대 이제까지 무표적 존재로서 차별과 편견과 불이익을 겪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주류 백인들의 인종적

27) Wiegman, *Ibid.* 158.

28) *Ibid.*, 157.

정체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소수집단의 사람들과 달리 사회적 특권과 혜택을 누려왔음을 직시하게 하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백인성 연구는 인종주의를 주변화된 타자들의 억압을 야기한 이데올로기 기제라고만 인식해온 관행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인종주의가 백인의 정체성 정립의 중요한 변인이었음을 되짚어 보고 아울러 당연시되어온 백인 우월성이 백인의 인종적 특권과 권력은 물론 도덕적 정당성의 동력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인지할 것을 요청한다. 백인성 연구는 또한 백인이 사회적 기준과 규범의 척도가 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백인도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인종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특히 백인사회에 주지시키고자 한다. 이런 시각은 차이의 정치학에 경도되어 “헤게모니를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the Hegemon and the Other)의 이분법적 구도로 환원되는 경향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그것의 접두어 ‘다, multi-’에 내포된 의미 그대로 다양한 인종 집단의 서로 다른 문화들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무대, 곧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원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비판적 교육의 주창자인 헨리 지루(Henry Giroux)는 이런 점에서 백인성 연구의 의의를 높이 산다.

Analyzing “whiteness” as a central element of racial politics becomes useful in exploring how “whiteness” as a cultural practice promotes race-based hierarchies, how white racial identity structures the struggle over cultural and political resources, and ho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defined, confirmed, or contested across diverse racial claims. “Whiteness” in this context becomes less a matter of creating a new form of identity politics than an attempt to rearticulate “whiteness” as part of a broader project of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²⁹⁾

29) Henry A. Giroux, “Racial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Whiteness,” *Whiteness: A Critical Reader*, Ed. Mike Hill (New York: New York UP, 1997), 295.

인종의 정치의 중심적 요소로서 “백인성”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백인성”이 어떻게 인종에 입각한 위계질서를 조장해왔는지, 백인의 인종적 정체성이 어떻게 문화적 및 정치적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을 구조화했는지, 또 어떻게 권리와 책무가 다양한 인종적 요구들을 가로지르며 정의되고, 확인되고, 의문시되었는지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맥락에서 “백인성”은 새로운 유형의 정체성의 정치라기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 문제라는 보다 넓은 기획의 차원에서 그것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루가 시사하듯이 백인성 연구는 다문화주의의 교육의 관점에서도 유용하다. 백인이 어떻게 소수집단을 주변화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통찰과 아울러 백인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자각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인성 연구는 무엇보다 인종주의를 개인적 편견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억압적인 인종주의적 문화에 대한 면책을 구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수집단의 억압과 착취가 정치와 제도의 문제이자 인종집단 전체의 책임임을 환기시킬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지루가 역설하듯이 백인 학생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백인성 교육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화된 인식과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억압적 제도가 어떻게 오늘의 삶의 현실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5. 심층적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도전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은 또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줄곧 직면해온 중요한 이슈들, 예컨대 개인과 집단의 문제나 시민권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관성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계기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그 취약성을 되새길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과 옹호의 논리의 근저에는 사실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가 우선인가라는 해묵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논했던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입장의 차이가 예시하듯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헌신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거에서 다문화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여기에 곧잘 역설적인 주장이 이어진다. 큰 틀에서 자유주의 전통을 수용하는 백인 보수 진영은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바벨탑화, 시민사회의 발칸화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판하면서 소수집단의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유된 국가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은 정치 이론으로서 다문화주의가 개개인의 인권과 사적 권리에 치중한 나머지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권리를 소홀시하는 자유주의 정치론의 일반적 경향을 비판한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역설을 새삼 상기시킨다. 가령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목적보다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전통의 인간을 “무구속적 자아”(unencumbered self)로 규정짓고, 그런 시각의 연장에서 어떤 목적이나 공동선을 함께 추구한 다기보다는 그런 무구속적 주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선양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샌델은 자유를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찾고, 공동선보다 권리를, 목적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결국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의 약화를 초래했음을 환기시키고 공동체 정신의 쇠퇴를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³⁰⁾ 샌델이 물론 자유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동체와 절연된 주체들로 이루어진 개인주의 사회는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30) Michael J. Sandel,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Political Theory* 12. 1(1984), 87.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이론가 킴리카(Will Kymlicka)는 소수집단권리가 과연 자유주의 원칙과 대립적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인가, 그것이 공유된 시민적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킴리카는 외부에서 주어진 이념에 사람들은 결코 헌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공유된 가치나 이념에 우선하는 것이 공유된 정체성 개념이라고 지적한다.³¹⁾ 이 공유된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언어, 역사, 종교 등 공유된 문화로부터 도출된다. 다시 말해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단의 기저 문화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정체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집단의 고립과 분리의 요구가 내부로부터 힘을 얻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사회의 소수집단의 경우 그들 문화에의 헌신이 지배적 문화에 통합되는 방법의 전환일 뿐, 통합 그 자체의 거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배 문화의 인정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제도의 개혁이지 집단의 자치나 독립적인 고유문화 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합당한 인정이나 보상적 우대에 대한 소수집단의 요구도 그 바탕에 분리나 자치의 요구가 아니라 기회 균등을 통해 보다 넓은 전체 사회로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킴리카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원주민 집단에게 법제정의 권한을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각의 우려처럼 집단내의 보수적 질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고 집단의 자치 경험이 오히려 문화변혁적인 길로 나가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요컨대 소수집단의 건전한 정체성은 사회전체의 거시적 견지에서 집단의 평등성과 유대를 촉진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자 조건이다. 기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자체도 집단의 상호 연대의 결과물이자 이

31) 윌 킴리카, 『다문화주의의 시민권』, 장동진 외 역 (파주: 동명사, 2010), 387-89.

32) Will Kymlicka, *Multicultural Odyssey: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New York: Oxford UP, 2007), 154.

연대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³³⁾

정전 개편 운동의 궁극적 정당성도 이에 연유한다. 백인 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 교실에서 백인들이 인디언을 말살하고 흑인을 노예화하고 린치를 가한 과거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다문화주의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이 숭고하고 도덕적인 역사만을 필요로 한다는 시각은 근시안적인 것이다. 오욕의 과거를 폐기처분한 ‘정화된’(sanitized) 역사 기술은 그 자체로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런 역사의 미화는 시민교육의 다른 목표, 곧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상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백인 남성 작가 중심의 전통적인 정전에 백인 작가나 여성 작가 두서너트를 끼어 넣어 가르치면 그것으로 다문화주의 교육의 이루어진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그린(Judith M. Green)이 역설한 대로, 어떤 교과과정도 명목상의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심층적 민주주의”(deep democracy)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떤 교육방식이 다원적인 미국사회에서 걸어 나온 최상의 가치를 견지할 수 있는 지를 살피는 일이다.³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되짚어보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물꼬를 튼 의의가 크다.

6. 다문화주의의 퇴조와 전망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을 고비로 퇴조한다. 그것은

33) 윌 킴리카, 같은 책, 394.

34) Judith M.Green, “Educational Multiculturalism, Critical Pluralism, and Deep Democracy,” *Theoriz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Ed. Cynthia Willet (Oxford: Blackwell, 1998), 426-27.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둬진 찬반 논쟁의 결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 탓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과가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시화되면서 논쟁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강상태는 얼마 가지 못한다. 2001년 9/11 사태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테러와의 전쟁의 선포로 안전 조치가 강화되고, 사회통합과 결속이 강조되고,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창되면서 다문화주의는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우파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9/11 테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었다. 적의 공격 앞에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은 인종, 종족, 성, 계급에 상관없이 미국인을 성조기 아래에 뭉치게 만들었고,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단속의 필요성이 고창되었다. 선/악, 우리/저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수사가 국민 정체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언설을 채색하곤 했다. 다문화적 용광로의 기표로서 ‘우리’ 라는 대명사를 더 이상 당연시 할 수 없게 된 사회적 분위기에서³⁵⁾ 국민 정체성의 강화 요구는 포용과 공존보다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부추기면서 동화주의의 파고를 다시금 거세게 만들었다. 미국정부는 안전 강화 조치의 하나로 약 8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및 아랍계 이민자 남성들에게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 날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이른다.³⁶⁾ 미국사회에 다시금 단일문화주의의 명령이 어긋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무슬림 이민자들이 급증한 유럽 사회에서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문화주

35)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London: Penguin, 2003), 7.

36) Rob Kroes, “Indecent Exposure: Picturing the Horror of 9/11,” *American Multiculturalism after 9/11: Transatlantic Perspectives*, ed. Derek Rubin & Jaap Verheul (Amsterdam: Amsterdam UP, 2009), 67; 9/11 이후 미국사회에서 무슬림과 아랍계 미국인들이 당한 감시와 억압에 대한 체험적 보고로 Moustafa Bayoumi, *How Does It Feel to Be a Problem?: Being Young and Arab in America* (New York: Penguin, 2008) 참조.

의 또한 거센 역풍을 맞게 된다. 오늘날 유럽 연합 15개국에 거주하는 비유럽계 이민자들은 대략 전체 인구의 5~10%,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15~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이민자들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무슬림이다.³⁷⁾ 무슬림 인구가 급증한 대도시의 경우 살상, 강도, 성범죄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백인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무슬림 계도 지역이 출현하는 등 유럽의 아랍화, 곧 유라비아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우려 속에서 1989년 『악마의 시, *The Satanic Verses*』가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저자인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의 대한 처형 판결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내재하는 폐쇄적 문화본질주의의 위험을 체감하게 된다. 이어서 터진 9/11 사태는 그 동안 다문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물론 유럽 연합의 대다수 국가에서 그것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방 세계와 이슬람의 정치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확산되면서 유럽 사회에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하는 가운데 특히 2004년 마드리드, 2005년 런던 폭탄 테러의 경우 자국 내의 계토화된 무슬림 이민자 공동체에서 자생한 과격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며 문화적 다양성의 용인이 결국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비등하게 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유럽 각국에 확산되면서 네덜란드에서 부르카 착용의 금지가 공론화되고, 2009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미나렛의 건축을 금지시키고, 2011년 프랑스 또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한편으로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토착 내국인과 구별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처럼 각국의 정책 기조가 되면서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이제 반인종주의적이라기보다는 신인종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고, 이런

37) Tariqu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Cambridge: Polity, 2007), 4.

상황의 지속이 다문화주의의 위기나 그 종언을 거론하는 전거가 되었다.³⁸⁾

거시적으로 보면 서방 세계와 이슬람 간의 정치적·문화적 충돌은 다문화주의 퇴조의 한 가지 원인일 뿐이다. 세계화의 가속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소수집단문화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다문화주의 또한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인종주의는 차별적 사회문화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태도의 문제로 간주될 뿐이다. 인종차별적 시선으로 곡해되고 외면당해온 소수집단 문화를 제도적으로서 선양시키려는 다문화주의의 노력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경쟁적인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을 요구하는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 체제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것이 망실되고 사적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문화주의와 안팎을 이루는 인종적 불평등 문제는 제도권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되고 현실과 무관한 과거지사로 간주되며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레이건의 집권으로부터 클린턴을 거쳐 부시 행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의 엄연한 사회적 현실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공적 영역으로부터 차츰 배제되어가며 이른바 “인종차별 없는 인종주의”(color-blind racism)의 양태로 변환되기에 이른다.³⁹⁾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퇴보 또한 이런 “부인된 인종차별화”(disavowed racialization)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본래 다문화주의 운동과 무관하게 이른바 ‘보상적 정의’의 개념에 입각해서 도입된 것이다. 소수집단의 사람들이 겪어온 부당한 차별과 억압

38) Alana Lentin &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Racism in a Neoliberal Age*. (London: Zed Books, 2011), 75-77; Tarique Modood, 같은 책, 10-14.

39) Christopher Robbins, “Racism and the Authority of Neoliberalism: A Review of Three New Books on the Persistence of Racial Equality in Color-blind Era.” *Journal for Critical Education Studies* 2.2 (2004), 248-51; Alana Lentin &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165-75 참조.

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 이 정책은 다문화주의 운동과 결부되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재확인 되었으나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더불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78년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앨런 바키(Allan Bakke) 소송은 그런 의문을 바탕으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비스 소재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 지원한 백인 앨런 바키는 두 차례에 걸쳐 입학 허가를 얻지 못하자 그 이유가 정원의 16%를 소수자집단에게 배정하고 있는 할당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정당하지만 정원을 할당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정당하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게 된다. 결국 1996년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워싱턴, 플로리다, 미시건 주 등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폐지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이런 이의 제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우월성을 두려운 백인 집단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다고도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 뒤이은 정치적 공정성 운동 및 다문화주의 운동을 거치면서 소수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아울러 1965년도 이민법 개정 이후 비백인계 이민의 꾸준한 증가, 출산율 차이로 인한 비백인 인구의 증가로 인구분포상 백인 집단의 상대적 소수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백색 아메리카’의 종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 그것은 이런 일련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⁴⁰⁾ 다문

40)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나 다문화주의의 퇴조를 ‘백인 집단의 반격’(white backlash)의 일환으로 조명한 연구도 다수인데, 전자와 관련해서 Matthew W. Hughey, “White Backlash in the ‘Post-Racial’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7.5 (2014): 721-30을, 후자와 관련해서는 Roger Hewitt, *White Backlash and the*

화주의의 퇴조는 이처럼 사회적 안전과 결속의 강화를 불러온 9/11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던 세계화의 물결과 거기에 편승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그리고 비백인계 인구의 증가로 백인 집단의 소수화를 우려한 백인 사회 일각의 반동적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04년 여름, 20여 년 만에 유럽에서 돌아온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그해 말과 이듬 해 초, 뉴욕 일대를 돌아보다가 이민자들의 관문인 엘리스 섬을 방문한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례를 기다리며 “공식적인 관문을 두드리는” 낯선 이민자들을 지켜보면서 “성스러운 미국인으로서의 의식, 미국에 대한 친근한 애국심”을 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한다. 그는 조국에 돌아와서 자신이 오히려 “탈취된”(dispossessed)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데 반해 시내를 오가는 전차에서 본 이민 노동자들의 “편안한”(at home)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토착 주민으로서 이런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양보하고 그런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처럼, 친밀하고, 감미롭고, 온전한 국민의식”의 향유를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⁴¹⁾

영국계 미국인의 인종적 우월성이 당연시되던 20세기 초에 가난한 이민자들의 신속한 동화에 충격을 느끼면서도 그들을 백안시해서는 안 되고 적극 껴안아야 된다는 제임스의 생각은 진보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그 당시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충당을 위해 유입되었던 이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던 시절이기도 하다. 제임스의 소회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반응에서 엿보이는 이민자에 대한 미국사회의 서로 다른 입장이나 동화의 문제는 한 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남아 있다. 날로 가속화되는 초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Cambridge UP, 2005)을 참고했음.

41) Henry James, *The American Scene* (Bloomington: Indiana UP, 1969), 85-86.

국가적 교류의 현실과 대내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결속에 대한 국민 국가적 요망 사이의 갈등은 미국의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는 변한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소수집단의 우대와 문화 존중이 결국 주류 백인 사회의 권익과 복리의 잠식을 치른 대가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다원성이 곧 미국사회의 커다란 자산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집단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온전한 국민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고창되고 있다.

이민자와 토착 주민의 관계, 국민적 정체성에 관한 이런 역사적 조망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1980년대의 ‘정전 전쟁’에 의해 홀연 촉발된 것이라기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을 새삼 상기시킨다.⁴²⁾ 다문화주의가 퇴조했다고 해서 그 문제 제기의 시효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인종/종족 집단 간의 사회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신속히 강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와 전통, 언어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그 후손이 모여 만든 사회에서 집단의 뿌리를 이룬 문화 전통의 유지, 타문화와의 관계, 문화와 정체성의 연관성, 사회적 평등과 결속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본질주의적 시각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사회적 변화상은 물론 구성원들의 변화와 더불어 그때그때 끊임없이 재론되고, 합의되고, 그 바람직한 양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다문화주의의 문제를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바 있는 모두드(Tarique Modood)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슬람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유럽 각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문화주의가 …… 평등한 시민권의 규범적 함의를 가장 잘 충

42) 정상준은 이런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살피며 그것을 넘어서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참조).

족시킬 수 있는 사회 통합의 형식이요, 9/11 혹은 7/7 사태 [2005년 런던의 폭탄 테러] 이후의 상황에서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⁴³⁾ 미국사회의 경우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력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21세기의 초국가적 상황에서 본래부터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경우 국제적 교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빈번할 수밖에 없고 이민자의 증가 또한 필연적이다. 이렇게 유입된 인구를 어떤 절차에 의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또 이들을 포함하여 소수집단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등한 권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 등의 문제는 긴요한 사회적 의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이들을 분리하거나 배제하고, 주류 사회의 필요에 따라 동화하라는 일방적 요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스만 터키나 인도처럼 과거에도 다문화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문화사회가 이런 전통적 다문화사회와 다른 것은 이주자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 이들과 먼저 정착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틀이 선협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문화주의는 바로 그런 논의의 무대요 대화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43) Tariq Modood, 같은 책, 14.

Works Cited

- 글레이저, 네이션.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최현미 역.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서울: 일조각, 2011.
-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35 (2009): 79-106.
- 우드, 피터.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김진석 역. 서울: 도서출판 해바라기, 2005.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 (2001): 77-93.
- 김리카, 월. 『다문화주의 시민권』. 장동진 외 역. 파주: 동명사, 2010.
- Bayoumi, Moustafa. *How Does It Feel to Be a Problem?: Being Young and Arab in America*. New York: Penguin, 2008.
- Baraka Amiri. *Home: Social Essays*. New York: William Morrow, 1966.
- Bennet, Tony.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Cultural Studies*. Ed. Lawrence Grossberg, Cary Nelson, and Paula Treichler. New York: Routledge, 1992. 23-37.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Bloom, Allan.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1987.
- Fiedler, Leslie A. & Houston A. Baker, Jr. ed, *English Literature: Opening Up the Can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1.
- Fullinwider, Robert K. "Multicultural Education: Concepts, Policies, and Controversies." *Publ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Theory, Critique*. Ed. Robert K. Fullinwider. Cambridge: Cambridge UP, 1996. 3-22.
- Giroux, Henry A. "Racial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Whiteness." *Whiteness: A Critical Reader*, Ed. Mike Hill. New York: New York UP, 1997. 294-315.
- Green, Judith M. "Educational Multiculturalism, Critical Pluralism, and Deep Democracy." *Theoriz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Ed. Cynthia Willett. 422-48.
- Grillo, R. D. *Pl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tate, Culture, and Ethnic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P, 1998.
- Hewitt, Roger. *White Backlash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 Cambridge UP, 2005.
- Hirsh, E. D.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1987.
- Hughey, Matthew W. "White Backlash in the 'Post-Racial'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7.5 (2014): 721-30.
- Ignatiev, Noel.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 Routledge, 1995.
- James, Henry. *The American Scene*. Bloomington: Indiana UP, 1969.
- Klein, Marcus. "Multiculturalism and Its Discontents." *New England Review* 18.4 (Fall 1997): 75-80.
- Kroes, Rob. "Indecent Exposure: Picturing the Horror of 9/11." *American Multiculturalism after 9/11: Transatlantic Perspectives*, ed. Derek Rubin & Jaap Verheul. Amsterdam: Amsterdam UP, 2009. 67-80.
- Kymlicka, Will. *Multicultural Odyssey: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New York: Oxford UP, 2007.
- Lauter, Paul. *Canons and Contexts*. Oxford: Oxford UP, 1991.
- _____. "Contexts for Canons." *Pedagogy: Critical Approaches to Teaching Literature, Language, Compositions, and Culture* 10.1 (2009): 107-16.
- Lentin, Alana and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Racism in a Neoliberal Age*. London: Zed Books, 2011.
- Lindenberger, Herbert. "On the Sacrality of Reading Lists: The Western Culture Debate at Stanford University." Accessed 4 Dec. 2016. (<http://www.pbs.org/shattering/lindenberger.html>)
- Modood, Tarique.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Cambridge: Polity, 2007.
- Morrison, Toni.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2.
- Neal, Larry. "The Black Arts Movement," *TDR: The Drama Review* 12 (Summer 1968): 29-39.
- Okin, Moller Susan.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ed. Joshua Cohen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99. 7-26.
- Phillips, Anne.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P, 2007.
- Robbins, Christopher. "Racism and the Authority of Neoliberalism: A Review

- of Three New Books on the Persistence of Racial Equality in Color-blind Era.” *Journal for Critical Education Studies* 2.2 (2004): 244-74.
- Roediger, David R.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Verso, 1991.
- Rowe, John Carlos, ed. *Post-Nationalist American Studi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0.
- Roza, Mathilde. “‘America under Attack’: Unity and Division after 9/11.” *American Multiculturalism after 9/11: Transatlantic Perspectives*. 105-17.
- Rubin, Derek and Jaap Verheul, ed. *American Multiculturalism after 9/11: Transatlantic Perspectives*. Amsterdam: Amsterdam UP, 2009.
- Sandel, Michael J.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Political Theory* 12. 1(1984): 81-96.
- Schlesinger, Arthur M. J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Revised Ed. New York: Norton, 1998.
- Smith, Wilson and Thomas Bender. *American Higher Education Transformed, 1940-2005: Documenting the National Discours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2008.
- Sontag, Susan.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London: Penguin, 2003.
- Taylor, Charle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Multiculturalism*. Ed. Amy Gutmann. Princeton: Princeton UP, 1994. 25-73.
- Willett, Cynthia. *Theoriz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Oxford: Blackwell, 1998.
-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2nd Ed.) London: Fontana, 1983.
- Wilson, Smith & Thomas Bender, ed. *American Higher Education Transformed, 1940-2005: Documenting the National Discours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2008.
- Wiegman, Robyn. *Object Lesson*. Durham: Duke UP, 2012.

- 논문 투고일자: 2016. 06. 08
- 심사 완료일자: 2016. 06. 22
- 게재 확정일자: 2016. 06. 23

Abstract

American Multiculturalism: Achievements and Its Prospect

Moonsu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from today's vantage poin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s of American multiculturalism and to identify its major achievements. As a movement it culminated in the 1990s and lost its energy especially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merican multicultural movements were inflamed by the canon wars and curriculum changes in academia, but their driving force stemmed from the social movements of the 1960s such as the civil rights and women's rights movements. It has made other notable achievements in addition to the successful canon reformation. Multiculturalism has made people alert to identity politics; it has also spurred the establishment of whiteness studies into the American academy; and it has occasioned a critical and ethical reflection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s well. Despite a pervasive backlash against multiculturalism, it will never die as long as the social conditions that excited it persist.

Key Words

미국 다문화주의(American Multiculturalism), 정전 전쟁(Canon War), 인정의 정치학(Politics of Recognition), 백인성 연구(Whiteness Studies), 인종차별 없는 인종주의(Color-blind Racism)